

전남 드라마 촬영지 핫 플레이스로 뜬다

‘구미호전 1938’ ‘어쩌다 마주친...’
현재 방영 드라마·영화 배경
순천 촬영장 80편 넘게 촬영
담양·장흥교도소·낙안읍성 등
풍광 어우러진 세트장 매력 인기

TV 드라마와 영화 속 명장면의 배경이 된 촬영지 전남을 알리는 명소로 뜨고 있다.

단조로운 촬영지 같지만 디테일한 세트장의 매력을 담아 영화·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찍는 재미가 쏠쏠하다. “남도 어디든 카메라 앵글만 갖다 대면 그림이 된다”는 말이 촬영감독들 사이에서 나올 정도로, 촬영지가 전남 곳곳에 수도룩하다. 지금껏 봄꽃 향기를 따라 다니며 취했다면 이번 주말엔 숨어 있는 촬영지를 찾아 떠나보면 어떨까.

순천 드라마촬영장은 전남에서 가장 많은 영화·드라마 촬영이 이뤄진 곳이다. 2006년부터 80편이 넘는 영화·드라마 등의 촬영 장소로 쓰였다. 세트장만 1만2000평 규모로, 1960년~1980년대까지 시대를 3개 마을로 꾸며졌다.

최근 종영한 오아시스(KBS) 주요 촬영지가 이곳이다.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격변의 대한민국을 배경으로 최근 방영됐던 ‘오아시스’의 주인공들이 머물렀던 공간 등을 배경으로 어디서나 인종상을 남길 수 있다. 일제강점기인 1938년을 배경으로 방영중인 ‘구미호전 1938’(tvN)도 여기에서 촬영했다. ‘소방서 옆 경찰서’, ‘파친코’ 등의 촬영 공간이기도 하다.

1987년에 간허버린 두 남매의 시간 여행을 다루는 ‘어쩌다 마주친, 그대’(KBS) 속에서는 주인공들이 화순 사평풍류마을과 상사교를 배경으로 촬영했다.

영한 장면을 찾아볼 수 있다. 넷플릭스로 방영된 ‘더 글로리’ 속 박연진의 어린 시절을 연기했던 신예은과 러운이 출연한 꽃선비열애사(SBS) 속 그림같은 대나무밭은 담양 만성리 대숲을 배경으로 했다.

조선변호사(MBC) 속 우도환이 돌아다니는 배경지는 사극 촬영지로 유명한 순천 낙안읍성 민속마을이다. ‘미스터 션사인’, ‘조선정신과의사 유세풍 시즌2’, ‘붉은단상’, ‘웃소매 붉은 끝동’의 촬영지이기도 하다. ‘법쩐’, ‘닥터로이어’, ‘인사이더’, ‘실감화’, ‘지금 우리 학교는’, ‘슬기로운 감빵생활’ 등은 옛 장흥교도소를 배경으로 했다.

옛 장흥교도소는 지난 2020년 유류공간 문화재 생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던 건물이다. 전남영상위원회가 영화 ‘프리즌’을 유치한 이후 매년 30~40편의 영화와 드라마 촬영 유치를 이끌어내면서 교도소 장면 단골 촬영지로 떠올랐다.

목포 서산동 시화골목 일대로 1970~80년대 건물들이 남아 있는 북고풍(레트로) 여행지다. 영화 ‘1987’ 촬영지로 유명한 연희네 슈퍼는 촬영 당시 모습이 남아 있고 벽화가 그려진 골목을 따라 올라가다 코발트빛 지붕이 겹쳐진 마을 모습과 다도해를 배경으로 찍는 인종상이 SNS에 차고 넘친다.

인기리에 막을 내렸던 tvN 드라마 ‘환혼’은 강진 백운동정원, 고흥 영남옹바위, 구례 쌍산재, 나주시 영상테마파크 등이 촬영지다. 강진 백운동정원은 호남의 3대 정원 중 하나인데, 드라마를 통해 왕대나무숲 등 그림 같은 풍경을 선보이면서 여행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모범택시 2’ 속 전남 촬영지를 찾아 돌아다니는 재미도 쏠쏠하다. 드라마는 옛 장흥교도소를 비롯해 담양 광일목장, 화순 편백자연휴양림 및 능주역, 보성 오봉역전 정류장 및 강골마을 등을 들며 찍었다.

드라마 ‘미스터 션사인’ 고예신(김태리)과 김희성(변요한)이 마지막 작별을 나누는 천은사 수홍루, 송서래(탕웨이)와 장해준(박해일)이 ‘우중 데이터’를 줄기 순천 송광사, ‘윤식당’ 촬영지인 구례 쌍산재, 수리남 촬영지인 고흥 항공센터 등은 꼭 가봐야 할 촬영 명소다.

전남도 관계자는 “아름다운 풍광, 역사적 장소, 맛의 고향 등 문화콘텐츠를 기반으로 전남의 맛과 맛을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5~6월 가족 소풍이나 피서시 전남의 유명 드라마·영화 촬영지를 찾아보는 것도 색다른 경험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3차 발사가 연기됐다. 누리호는 24일 발사를 앞두고 기술 결함이 발생하면서 발사가 중단됐다. 사진은 지난 23일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 기립된 누리호가 발사대에 고정돼 있는 모습. /연합뉴스

누리호 발사 연기... “제어 컴퓨터간 통신 이상 발생”

문제 해결시 이르면 오늘 재발사

“무한한 우주에 꿈과 희망을 펼치기 위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세 번째 도전이 잠시 미뤄졌다. 이번 3차 발사가 실제 위성이 실리는 실전 임무라는 점에서 과학계 안팎의 관심과 기대를 모았지만 발사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기술적 문제로 다시 한 번 우주를 향해 날아오르는 누리호의 도전은 연기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오후로 예정됐던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발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만약 원인 해결과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면 25일 오후 6시24분에 발사할 예정이다.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이날 오후

4시 10분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발사 준비 과정 중 발사 제어 컴퓨터와 발사대 설비를 제어하는 컴퓨터 간 발생한 통신 이상 문제로 예정된 누리호 3차 발사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누리호는 발사 하루 전인 23일 오전 발사대로 이송, 기립 후 발사체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엄밀리칼을 체결했고 24일 낮 12시 24분에 발사운용 절차를 진행했는데, 오후 3시에 이상 현상 발생을 확인했다는 게 오 차관 설명이다.

오 차관은 “수동 작동은 되지만 운용 시스템 자체가 ‘자동 운용’ 모드에 포함돼 있어 여기에서 중단될 우려가 있어 부득이하게 발사를 취소한다”

고 말했다.

누리호는 발사 10분 전부터 발사체 이륙 직전까지 발사관제시스템에 의해 자동적으로 이뤄지는 ‘발사 자동 운용’에 들어가게 되며, 자동 운용 중 이상 현상을 감지하게 되면 발사가 자동으로 중단된다. 현재 항우연 연구진들이 통신 이상 현상에 대한 원인 규명과 해결 방안을 검토 중이며 향후 원인 분석 및 이상 현상에 대한 조치가 완료된 후 발사가 재개될 예정이다.

오 차관은 “25일 오전 중 발사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상황을 종합 검토한 후 발사 일정을 다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흥 나로우주센터=김지을 기자 dok2000@

조선대·조선간호대 통합... 양 대학 협약 체결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산하 조선대학교와 조선간호대가 전격 통합을 추진한다.

조선대학교(총장 민영돈)는 24일 학교 본관 법인 이사장실에서 조선간호대학교(총장 박명희)와 통합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같은 법인 산하 대학이지만 대학 간 통합은 광주 사립대 가운데 처음으로 알려졌다.

협약 골자는 대학 통합을 통한 대학발전 비전 수립, 지역 정주 인재양성체계 방향 모색 등이다.

두 대학은 협약을 계기로 시설, 전공·교양 교과목, 동아리활동, 취업프로그램 등 전 분야에 걸쳐 통합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두 대학은 대학 교육 경쟁력 강화와 지역 정주 우수인력 양성, 지역발전 선도를 위해 통합에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법인인 두 대학의 통합함으로써 정부의 글로벌(Global+Local) 대학 사업에 선정될 수 있는 초석을 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사업은

30개 비수도권 대학에 5년간 최대 1000억원의 정부 예산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조선대는 1946년 설립돼 재적학생 수는 2만5900여 명이며 조선간호대는 1971년 설립했으며 현재 재적학생수는 810명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총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포대부고 총동창회 27차 정기 회기 정기총회 및 회장 미·취임식

일시
2023. 5. 30 (화) 오후 6시30분

장소
데일리웨딩컨벤션 1층 라비야홀

☎ 062-371-3500
광주 서구 상무대로 683



2023년도 전라남도 SOC확충 올해도 지속된다!

2023년 국고예산, 역대 최대 8조 6,525억원 확보!
정부의 SOC예산 축소 기조 속에서도 7년 연속 1조원 이상 국비 확보!
신규 사업 발굴로 전남 SOC 르네상스 시대 열다!

세계로 준비하는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



